

연금 평균 수령액 고작 ‘50만원’...노후가 두렵다

☞ 미래 대비하자...국민연금 관리법

〈1〉광주·전남 연금 수급 현황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방대한 사회보장제도이자 세계적 규모의 공적 기금이다.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불과 30여년 만에 운용 자산이 지난 7월 말 기준 1천304조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연금의 미래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저출산, 기금 고갈 논란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은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연금 수령액도 부족해 노후 준비에 빨간 불이 켜졌다. 이에 지역 연금 수급자 현황, 실태, 대안 등을 3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6월 말 기준 평균 52만6천925원 받아

노후 최소생활비 136만원의 39% 불과

최근 2년세 수급자 늘고 가입자 줄어

생활자금 마련 등 ‘생계형 취업’ 증가

노후 보장의 최후 보루인 연금을 수급하는 지역 노인이 늘어나고 있지만 수급액은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13일 국민연금 월별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광주·전남의 노령연금 월 수령액은 각각 55만 5천548원, 49만8천302원 등 평균 52만6천925원으

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1인 기준 노후 최소생활비’인 136만1천원의 38.7%에 불과한 수치다.

최근 주목할 부분은 지역 수급자는 증가한 반면, 가입자는 줄어든다는 점이다.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 수급자는 각각 14만2천459명, 26만8천767명으로 총 41만1천226명이다. 2023년 수급자(광주 13만1천707명, 전남 25만2천866명) 38만4천573명과 비교할 때 1년 사이 총 2만6천653명이 늘었다.

이와 달리 지역 가입자 감소세는 두드러진다.

2023년 가입자는 광주 42만8천309명, 전남 59만9천881명 등 총 102만8천190명이었지만 2024년엔 총 100만4천559명(광주41만8천633명·전남58만5천92

6명)으로 1년 사이 2만3천631명이나 감소했다.

연령 별로로는 30~34세, 54~59세 구간 외에 모든 연령대에서 가입자가 줄었다. 이는 취업 연령 상승으로 30대 초반에 최초 가입하는 가입자가 증가한 데다, 50대 후반 가입자의 경우 고령층의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수령 시기가 도래하는 국민연금의 제도적 특성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지역 고령자들은 생계를 위해 은퇴 후에도 새로운 직장을 찾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가데이터저(옛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광주의 6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17만8천명(경제 활동 참가

율 47.8%)으로 올해 1분기(17만1천명) 대비 7천명 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남 역시 6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가 36만4천명에서 37만2천명으로 8천명 늘었다.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59%에서 60.1%로 상승하며 전남 지역 고령층 10명 중 6명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설명진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은 “가입자가 줄고 수령자가 늘어나는 현상은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의 영향이 가장 크다”며 “가입자 확대를 위해 연금 소의계층 발굴, 연금 바로알기 교육, 제도 홍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민들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활동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태호 기자

수도권 기업 광주·전남 이전 최근 6년간 단 한 건도 없어

지방투자보조금 실적 저조 균형발전 요원

김원이 “정부, ‘5극3특’ 실질 뒷받침해야”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2004년 도입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제도 취지와 달리 기대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이 13일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건수는 2020년 72건에서 2021년 69건, 2022년 62건, 2023년 55건, 2024년 54건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올해의 경우 8월 말 기준 23건에 불과해 연말까지 약 50건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수도권 기업이 지방 이전을 이유로 보조금을 받은 사례는 최근 6년간 단 18건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8건, 2021년 1건, 2022년 5건, 2023년 2건, 2024년 1건, 2025년 8월 현재 1건으로 수도권 이전 실적은 사실상 멈춰 선 상태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광주·대구·울산·경북은 수도권 기업 이전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으며,

부산·대전·전북·제주·세종도 1건에 그쳤다. 이는 제도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보조금의 대부분은 지방 기업의 신·증설 투자에 집중됐다. 하지만 신·증설 지원 건수 역시 2020년 64건, 2021년 68건, 2022년 57건, 2023년 53건, 2024년 53건, 2025년 8월 말 현재 22건으로 감소세가 뚜렷하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지방기업의 신·증설 투자, 산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등에 대해 투자 지역과 기업 규모에 따라 입지·설비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다.

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 창출 유도, 연관 산업 성장,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직·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신·증설 위주로만 집행돼 수도권 이전 효과는 사실상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원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모두가 잘사는 국가 균형성장을 위해 ‘5극 3특’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부의 현행 지원 방식으로 수도권 집중 완화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세제·임지 인센티브 확대 등을 마련해 5극 3특 전략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추억의 충장축제로 오세요” ‘제22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 개막을 이틀 앞둔 13일 오전 동구신서석로 빛의음성 앞에서 열린 사진 홍보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충장축제 추억유랑단원들과 임택 동구청장이 춤을 추며 축제를 홍보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기자

광주·전남 지자체 해킹 시도 4천931건

4년 동안 각 1천312건·3천619건

해외서 시도 사례 78%·86% 집중

최근 4년간 광주·전남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해킹 시도가 5천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킹 시도가 개인정보 유출·망정지 등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

터 제출받은 ‘해킹 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광주지역 지자체와 전남지역 지자체에 각각 1천312건과 3천619건의 해킹 시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해킹 시도는 광주의 경우 2022년 707건, 2023년 287건, 2024년 185건 등이다. 올해에도 7월 기준 133건의 해킹 시도가 이뤄졌다.

전남은 해킹 시도가 2022년 850건에서 2023년 1천56건, 2023년 1천204건 등이다. 올해 7월 기준으로는 509건이 발생했다.

광주·전남 지자체에 대한 해킹 시도는 대부분 해외에서 이뤄졌다.

이 기간 공격자 IP 위치 기준 해외 해킹 시도는 광주 1천36건, 전남 3천135건으로 전체 해킹 시도의 78%, 86%를 각각 차지했다. /양시원 기자

Today

“섬·산간지역도 긴급출동서비스 적용” 4면

‘글로벌 이주 허브’ 광주·전남 대전환 5면

2025 KIA 실속없는 ‘한방’...결정력 부재 16면



제17회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접수마감
10.15
도착분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 접수 인정

주최 광주매일신문, 광주매일TV
주관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동우회
후원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광주은행

공모 분야

출품자격 일반부문 - 제한 없음 / 특별(학생)부문 - 사진에 관심있는 중·고 재학생
출품료 1인당 30,000원 (단, 학생부 출품료 없음)
작품내용 미발표 작품으로 미공표작에 저속되지 않는 작품
작품규격 컬러, 흑백 11"×14"(정정불요)
접수처 (61475)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96번길 5 삼호센터 8층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동우회
연락처 062-234-2323
출품수 4점 이내
작품 뒷면에 명제, 주소, 성명, 전화번호, 우편번호, (일반·학생)기재
심사일시 2025년 10월 21일(화)
심사장소 광주국제교류센터 강당 (다목적실) 예정
심사발표 2025년 10월 23일(목)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www.pask.net / 광주매일신문 홈페이지 및 지상(예정) www.kjdaily.com
시상식 일시 및 장소 2025년 11월 12일(수) 오후 2시 / 광주국제교류센터 강당 (다목적실) 예정

시상 내역

- 일반 공모 부문
 - 대상(1점) 광주매일신문 사장 상장 및 부상 200만원
 - 최우수상(1점) 광주매일신문 사장 상장 및 부상 100만원
 - 우수상(2점)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장 및 부상 50만원
 - 특선(입선10%이내) 광주매일신문 사장 상장
 - 입선(출품수의 20%이내) 입상작 포함,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장
- 특별(학생) 부문
 - 대상(2점) 광주광역시 교육감 상장 및 메달
 - 특선(5점)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장 및 메달
 - 최우수상(1점) 광주광역시 교육감 상장 및 메달
 - 입선(50점 내외)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장
 - 우수상(1점) 광주매일신문 사장 상장 및 메달
- 초대작가상
 -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배
 - *초대작가: 합산 15점 이상 입자(대상 6점, 최우수상 5점, 우수상 5점, 특선 4점, 입선 2점)는 본 사진대전 초대작가로 추대한다.

작품반출 접수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고 시상식 후 상장과 작품집만 발송함. (단, 광주지역 출품자는 동우회 사무실에서 직접 수령요함)

기타 사항

- 특전 초대작가 제도 운영 (본 대전에서 총 접수 15점 이상 취득한 자)
본 대전 입상자는 광주매일신문 사진동우회 회원 자격을 부여함. (단, 입상경력 2회 이상)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나 주최측에선 수상작에 한하여 도서출판, 홍보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상, 입선자의 원본파일을 5일 이내에 성명, 제목을 기재하여 brcm@naver.com으로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상권취소됨)
수상작과 관련한 초상권 분쟁은 출품자가 책임을 지어 함.
초대작가 작품 e-mail 제출 (cjkang2323@naver.com), 출품시 주소, 성명, 명제, 연락처 기재요망